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18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18일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130만 건설기능인을 대표해 282명이 14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 방수)에 출전해 그동안 자신이 연마했던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대회장인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원익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홍수 원장, 건설기술교육원 김석현 원장과 국토교통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충북도청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음성군청 임택수 부군수 등 건설단체장 및 정부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건설기능인 여러분이야말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산업역군이다”면서 “앞으로 펼쳐질 선진한국의 기반도 여러분들의 두 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자부심과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건설산업 발전의



응시현장을 찾아 참가자를 격려하는 내외귀빈과 건축배관 및 전기용접 대회장


기본 토대가 되는 건설기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촉진을 위해 대회 장소인 기술교육원에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 입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 지원

한편, 각 분야에 출전한 기능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64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및 상패,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국내외 산업연수 등 특전이 주어지며,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9월 21일에 발표한 제23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수상자 중 건축배관 부문과 전기용접 부문에 총 5명의 우리협회 추천 참가자가 입상했다.

이번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배관	1	최철웅	(주)세영이엔지
	2	김현재	(주)정우이엔지
	3	지용일	대산이엔씨(주)
전기용접	2	조승익	형성실업(주)
	3	황태익	성우설비(주)